

글짓기 나라

김종상 지음

재능교육 / A5신 / 246면 / 3000원

고인 물이 썩듯이, 단힌 마음에서는 생각도 썩게 마련. 단힌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쏟아내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이다.

이 책은, 글로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어린이, 글쓰는 방법을 몰라 찢찢매는 어린이들을 위해 7명의 국민학교 선생님이 현장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안내한 책이다. 일기·생활문·독서감상문·편지글·동시·기행문·기록문·설명문·논설문 쓰기로 내용을 나누어, 과연 그것은 어떤 글이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를 풍부한 예문과 함께 소개했다.

생각하는 동화 II

이대호 지음

선경 / A5신 / 212면 / 2000원

전설에서 자주 나오는 귀신이나 도깨비, 구미호나 흡혈귀 등은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할까?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점장을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일은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일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일을 하며 보람을 찾을 것인가?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때때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철학동화. 어린이들이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아울러 철학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꾸민 동화책이다.

파브르 과학이야기 1.2

J.H.파브르 지음 / 신일성 옮김

창작과 비평사 / A5신 / 각 220면 내외 / 각 2500원

세계적인 명저 「곤충기」를 남긴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어린이들을 위해 갖가지 과학현상들을 쉽고도 재미있게 설명한 과학이야기 책.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개미 일꾼들, 생활에 요긴한 물건들을 만드는 금속재료의 특성, 비는 왜 오는 것이며 천둥과 번개는 왜 생기는 등 어린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총망라돼 있다. 끌레르와 주르, 에밀 세 어린이가 폴아저씨와 함께 시골집에 머무르면서 자연에 눈뜨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린 작품. 창비아동문고 108, 10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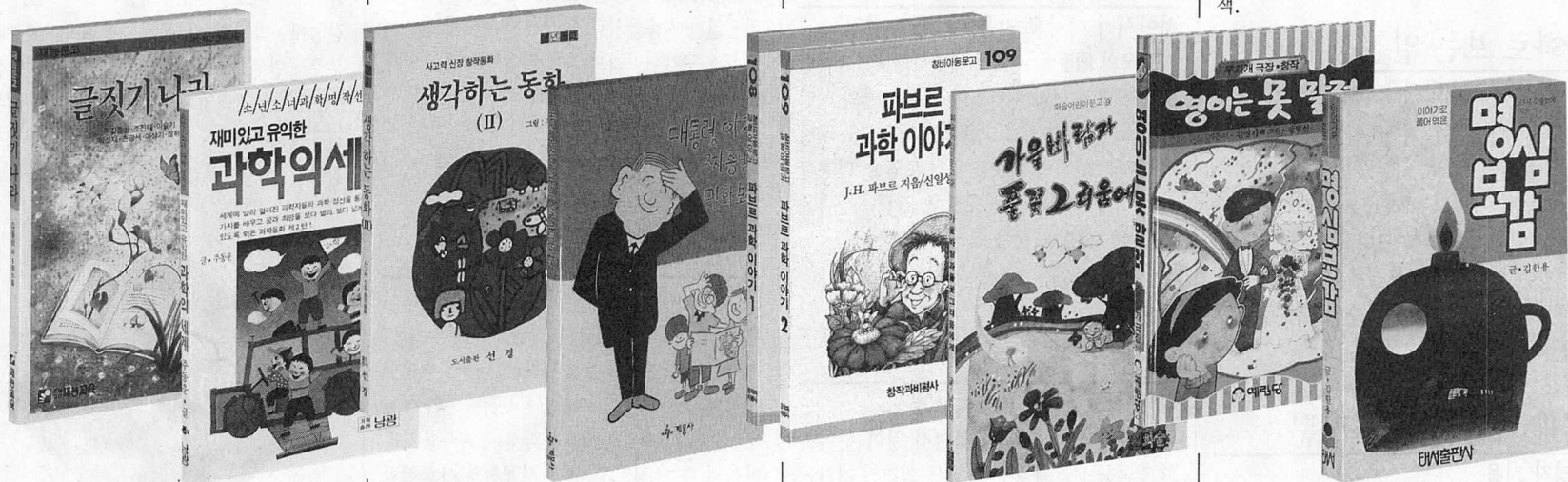
영이는 못 말러

김영자 지음

예림당 / A5신 / 112면 / 2500원

국민학교에 들어간 기념으로 엄마와 함께 옷을 사러 나온 영이의 눈에 띈 하얀 웨딩드레스. 영이에게는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 준이가 있다. 그런 영이에게 귀여운 바둑이 친구가 생겼다.

자기의 점심밥을 바둑이에게 갖다주기도 하고 함께 달리기도 하던 어느날, 바둑이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자 영이는 바둑이를 찾으러 나선다. 수선스럽지만 사랑이 많은 8살박이 꼬마 영이의 이야기 「영이는 못 말러」를 비롯, 「꿈돌이 모자」「어린 꿀벌 치치」「꿈 속의 친구들」 등 4편의 중단편 창작동화를 수록한 책.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의 세계

주동운 지음

南光 / A5신 / 164면 / 2000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과학정신을 통해 참다운 가치를 배우고, 꿈과 희망을 보다 멀리, 보다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엮은 과학이야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으나 평화를 지극히 사랑했던 노벨, 「동의보감」을 쓰고 우황청심환을 만들어낸 조선조의 명의 허준, 어려서부터 호기심 많고 기계다루기를 좋아했던 자동차왕 포드, 상대성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물리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아인슈타인 등 6명의 과학자들의 생애와 탐구정신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과학의 세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체로 이끌어가고 있다.

대통령 아저씨 짜증날 땐 만화 보셔요

편집부 엮음

계몽사 / B5 / 134면 / 2000원

어린이들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냈다.

“피곤하시면 꼭 주무시고, 짜증이 나시면 만화책을 읽으세요. ... 화가 나시는 일이 없더라도 만화책을 많이 읽고 많이 웃으세요”라며 자신의 비법을 귀뜸해주는 어린이, “청와대에는 방이 몇 개나 있나요? ... 저도 빨리 커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살 거예요”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어린이, “아저씨 더욱 더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적은 어린이 등 순수하면서도 감쪽한 내용의 편지 100편이 수록돼 있다.

가을바람과 풀꽃 그리움에게

남진원 지음

화술 / A5신 / 102면 / 1800원

고향과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동시 70여편을 수록했다. 저자는 강릉 명주국민학교교사.

나무는 나무끼리 / 꽃은 꽃끼리
이때 쬐미면 / 서로 몸을 기댄다.

별이 몇 개 / 문을 열고
살며시 내려다 보는

꿈을 꾸듯 / 조용한
시골 밤 마을

달님이 / 시골집 봉창에
밤 깊도록 / 동양화를 그리고 있다.

「고향집」 중에서

명심보감

김한용 지음

태서출판사 / A5신 / 414면 / 3000원

「명심보감」은 고려 제29대 충렬왕 때의 문신이었던 추적(秋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귀한 말들을 모아 엮은 책. 계선·천명·순명·효행 등 모두 24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후일 증보된 5편을 뺀 원래의 19편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말만을 골라서 쉽게 풀어 소개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이에 보답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없이 귀중한 보배이며 정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등의 교훈을 재미난 옛날이야기를 통해 깨우쳐주고 있다.